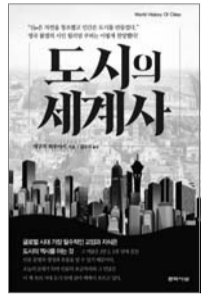


수메르에서 뉴욕까지... 도시 역사는 문명의 역사

도시의 세계사

데쿠치 하루아키 지음·김수지 옮김



18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는 "신(神)은 자연을 창조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했다. 신과 인간을 대조해 각각 '자연', '도시'를 창조하고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류가 만든 도시가 대단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서 세계사와 세계도시사 강의를 했으며 현재 리쓰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 확장인 데쿠치 하루아키가 펴낸 '도시의 세계사'는 다양한 도시의 문명사를 조망한다. "나는 도시의 역사에 반영된 여러 문명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런데 먼 옛날 고대도시 수메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세계 도시의 민낯 여기저기에 도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싶었다." 저자는 오랜 세월을 거쳐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던 이스탄불(제2의 로마)에서 시작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을 거쳐 로마에 다다른다. 인도를 비추는 도시 델리, 영웅들의 꿈과 좌절이 녹아 있는 도시 카이로, 초원으로 빛나는 푸르른 도시 사마르칸트, 세 명의 거인이 완성시킨 도시 베이징이 소개된다. 또한 명실상부한 현대의 세계 도시

뉴욕, 유럽에 활짝 핀 꽃의 도시 파리, 20세기를 연출한 도시 베를린, 예나 지금이나 영원의 도시인 로마도 등장한다. 저자는 광장을 중심으로 직선 도로가 방사형으로 뻗은 델리는 신비로운 도시라고 설명한다. 2차대전 후 인도가 독립한 후에 도 정치의 중심지였다. 타지마할 등 3개의 세계문화유산이 있으며 공원에는 열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풍속 속에 도로를 오가는 소들의 모습까지 델리에는 신비한 매력이 펼쳐져 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는 오래된 마을 옆에 건립한 새 마을이라는 뜻이다. 오래된 마을을 없애지 않고 바로 옆에 도시를 건설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살아 있는 역사 유산을 볼 수 있다. 풍요로운 나일강은 다른 민족들의 표적이 됐지만 오늘날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옛 수도인 마라칸다는 사마르칸트의 전신이다. 이곳은 초원의 영웅들이 많은 이야기를 남긴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로 불린다. "이란의 신화에서는 이 지대를 투란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하늘이 무척 맑고 푸르러 '푸른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모스크와 마드라사(이슬람교 교육기관), 티무르 일족의 무덤, 다채로운 탑과 건물의 파란색이 파란 하늘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책을 번역한 김수지 박사는 "기원전 고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역사는 시간의 강이었다. 이 책은 그 강 속에서 잘나고 불교한 순간들을 살아가며 저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흥망성쇠를 오가는 도시의 모습들을 담아냈다"고 언급했다. <문학사상·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프라가 묻고 시대의 지성들이 답하다

위즈덤

오프라 윈프리 지음·노혜숙 옮김



년 1000억달러 이상 수입을 벌어들이고, 연예인 가운데 최고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가 됐다. 나눔에도 열성인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리더십 여학교를 설립하는 등 국경을 넘나드는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1년 25년간 지켜온 '오프라 윈프리 쇼'를 은퇴하며 자신의 이름을 건 'OWN(Oprah Winfrey Network)' 채널을 설립한 오프라는 각계각층의 명사들을 초청해 솔직하고 통찰력 있는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 '슈퍼 소울 선데이(Sunday)'를 제작했다. 시청자만 100만명이 넘고 9년간 16시즌을 거듭하며 에미상을 일곱차례 수상한 프로그램이다. 오프라 윈프리의 신작 '위즈덤-오프라 윈프리, 세기의 지성에게 삶의 길을 묻다'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화의 정수를 담아 쓴 책이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 중 하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스스로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자신의 비전을 확장하도록 서로의 생각을 연결해주는 일"이라는 생각에 '슈퍼 소울 선데이'를 제작한 오프라는 "프로그램에서 받은 가장 감동적인 영적 교훈을, 반짝이는 재기, '아하'의 순간들을 담아" 이번 책을 펴냈다.

삶을 충만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 생각한 그녀는 그 답을 시대의 지성들에게 묻고 10개의 키워드로 나누어 전한다. 그녀와 대화를 나눈 이들은 '연금술사'의 파울로 코엘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엘리자베스 길버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잭 캔필드, 탁날향,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CEO, 아리아나 허핑턴 등 명사 80인이다. 키워드는 '깨어있음', '의도', '마음챙김', '영혼의 GPS', '자아', '용서', '내면에서 묻어 열리다', '은총과 감사', '성취', '사랑과 연결'이며 매 장은 오프라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책은 대화의 배경이 된 오프라의 산타바바라 집과 주변 풍광 사진도 실렸다. <1만7000원·다산책방>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나의 독산동=1980년대 독산동에 위치한 작은 마을. 교과서와 선생님들 '공장이 들어서면 시끄러워져 나쁜 마을이 된다'고 하지만, 은이는 오히려 공장이 들어서면 좋은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의 일터인 공장과 가정집이 별다른 구분 없이 어우러져 사는 당시 사회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동네'의 의미와 역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배운다. <문학고지서사·1만5000원> ▲생일 축하해요= '감성밴드여우비'가 기존의 '생일 축하노래'의 감동과 파스함을 살리면서도 리듬감과 발랄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우는 곡 '생일 축하해요'를 음원으로 만들고, 배현정 작가의 그림과 함께 가사를 담아 책으로 출간했다. 뒤표지에 수록된 QR코드를 통해 노래를 들으며 읽을 수도 있고, 악보에 맞춰 움직이는 노래 가사로 다양하게 책을 즐길 수 있다. <바람의아이들·1만3000원> ▲엄마는 태양의 여제예요=보통 힘들고, 아프고, 지친 모습으로 그려지는 '워킹맘'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책이다. 트럭을 몰고, 새벽 시장에서 옷을 실어 나르고, 청과물 시장에서 과일·채소를 실어 나르면서 얼굴이 까맣게 탄 엄마를 '태양의 여제'라고 새롭게 해석하며 이 시대 '워킹맘'들에게 위로를, 아이들에게 열린 사고를 제공한다. <씨드북·1만2000원>



새로 나온 책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한국 현대사에서 공권력의 행사는 냉정하게 통제되지 못했고, 법적 절차 없는 살해나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국가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은폐·왜곡돼 왔던 진실을 밝혀내는 책이다. 대구 10월 항쟁, 보도연맹사건, 간첩조작사건 등 사건들을 짚고 지금까지의 과거사 청산 성과를 평가한다. <푸른역사·2만원> ▲말하는 수학=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고안한 '플립러닝 공부법'을 활용,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공부하게 만드는 '말하는 수학 공부법'을 담은 책이다. 이른바 '수포자'를 양산하는, 교사의 '조용히 해'라는 말로 대표되는 수동적인 교실 분위기를 뒤집어 학생중심 참여수업을 통해 능동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법을 설명한다. <글로세움·1만5000원> ▲아메리카나1·2=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는 페미니스트' 등 저자로 세계 여성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 작가 차마만다 응저지 아디체. 그의 최신 소설 '아메리카나'를 사진작가 김강희의 표지 사진 콜라보레이션과 함께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책이다. '아미존'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즈 선정 '올해 최고의 책'에 선정된 이 책은 나

이저리아에서 소녀가 미국으로 떠나 겪는 인종 차별 등 경험을 발랄한 문체로 그렸다. <민음사·각권 1만5000원> ▲어떻게 뇌를 고칠 것인가=지난 20여년간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 개발의 원동력이 됐던 '아밀로이드 가설'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신약 후보물질 '아두카누맵'은 왜 실패했을까. 알츠하이머 병을 극복하기 위한 지난 노력과 함께 조기 진단·'바이오마커'·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등으로 신약 개발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아본다. <바이오스펙티어·3만4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나의 독산동=1980년대 독산동에 위치한 작은 마을. 교과서와 선생님들 '공장이 들어서면 시끄러워져 나쁜 마을이 된다'고 하지만, 은이는 오히려 공장이 들어서면 좋은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의 일터인 공장과 가정집이 별다른 구분 없이 어우러져 사는 당시 사회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동네'의 의미와 역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배운다. <문학고지서사·1만5000원> ▲생일 축하해요= '감성밴드여우비'가 기존의 '생일 축하노래'의 감동과 파스함을 살리면서도 리듬감과 발랄한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우는 곡 '생일 축하해요'를 음원으로 만들고, 배현정 작가의 그림과 함께 가사를 담아 책으로 출간했다. 뒤표지에 수록된 QR코드를 통해 노래를 들으며 읽을 수도 있고, 악보에 맞춰 움직이는 노래 가사로 다양하게 책을 즐길 수 있다. <바람의아이들·1만3000원> ▲엄마는 태양의 여제예요=보통 힘들고, 아프고, 지친 모습으로 그려지는 '워킹맘'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책이다. 트럭을 몰고, 새벽 시장에서 옷을 실어 나르고, 청과물 시장에서 과일·채소를 실어 나르면서 얼굴이 까맣게 탄 엄마를 '태양의 여제'라고 새롭게 해석하며 이 시대 '워킹맘'들에게 위로를, 아이들에게 열린 사고를 제공한다. <씨드북·1만2000원>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안내' (Business Opening/Success Announcement)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al estate, education, and other services.